

주간기도정보

2024. 3. 5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사 62:7) 주님은 열방의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기까지 쉬지 않고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간기도정보는 이 말씀에 근거하며, 열방의 소식들을 진리의 말씀에 기초하여 주님이 일하시도록 기도하는 모임입니다.

진행순서 (1) 예배 (2) 한국과 북한, 다음세대를 위한 기도 (3) 열방을 위한 기도 - 한주간 긴급기도

1. 한국교회를 위한 기도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니라”

“나라와 민족 진흥 위해”...기도로 하나 된 ‘3.1절’

지난 1일 ‘3.1절 나라를 위한 특별기도성회’ 열려



1일 일제의 식민 통치에 항거한 3.1운동 105주년을 맞아 연세중앙교회에 3만 5,000명에 달하는 교인들이 모였다. 전국에서 온 교인들은 초반부터 3.1운동을 연상시키듯 우렁차게 만세 삼창을 했고 나라와 민족의 진흥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했다. ‘나라를 위한 특별기도회 준비위원회’가 주최한 ‘3.1절 특별기도성회’ 현장이다.

기도성회에선 3.1운동의 성경적 가치를 돌아보는 시간도 가졌다. 강단에 선 김재동 하늘교회 목사는 “3.1운동의 궁극적인 목표는 해방만이 아닌 새로운 주권 국가를 건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3.1운동 이후 제정된 임시정부의 임시헌장을 보면 국가의 성격이 엇보인다”며 “민주공화국이 돼야 한다는 것과 ‘대한민국은 신의 의사에 의해 건국’돼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기독교 정신의 기초 위에 나라를 세우야 한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전방위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성오염’ 물결을 막아내고 다음세대를 지켜야 한다는 결의도 다졌다. 핵심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차금법) 제정 방지였다. 박한수 제자광성교회 목사는 “입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여기 모인 성도들은 기독교인으로서의 분명한 정체성을 갖고 더욱 연합해 악법 제정을 막아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교회와 회개, 차금법과 동성애 반대, 국가적 영적 전쟁 등을 주제로 교인들이 합심 기도했다. 일어나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사람, 앉아서 두 손을 가지런히 모은 채 기도하는 사람 등 저마다의 모습으로 행한 기도 소리가 온 성전을 가득 메웠다.

기도성회에 참석한 교인들은 큰 은혜를 받은 모습이였다. 연세중앙교회 성도 김경우(34) 씨는 “특별한 의미를 가진 날에 전국 교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도한 것이 참으로 뜻깊었다”며 “올바른 교인으로 살아가는 참된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됐다”고 전했다.

기도성회에선 ‘3.1운동 헤리티지 사진전’도 진행됐다. 암울했던 조선 말 믿음의 선구자들이 전한 메시지를 시작으로 대한민국 탄생과 전쟁의 아픔·좌절, 국가 재건을 가능케 했던 일화 등이 98장의 사진으로 선보였다.

한편 이날 서울 강남구 총무성결교회(성창용 목사)에선 ‘하나님 사랑으로 화합하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제37회 3.1절 민족화합기도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 참석한 교인들은 한마음으로 “내 주는 강한 성이요”라는 찬송을 불렀다. 이후 총 4개의 주제를 갖고 합심 기도가 이뤄졌다.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한국교회의 연합과 일치, 평화통일, 민족 화합 등이다.

특강에 나선 이은선 안양대 명예교수는 한국 기독교와 3.1운동의 연관성에 대해 설명했다. 이 교수는 “3.1운동에 참여한 33인의 민족 대표 중 다수가 기독교인들이었다”며 “기독교인들은 일제에 항거하는 운동과 함께 신사참배를 거부함으로써 믿음의 결단을 표시했다”고 강조했다(출처: 국민일보 종합).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다니엘 4:17)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디모데후서 2:15)

하나님, 나라를 잃고 일제의 압제 아래 신음하며 부르짖던 민족의 신음을 들으사 독립을 주시고 대한민국을 주의 뜻 안에 건국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나라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대히 3.1 독립 만세를 외치며 나라를 사랑하고 희생하였던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 지금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있음을 깨우쳐 주십시오. 이 땅을 다스리고 세우신 분이 하나님임을 분명히 알고 진리의 말씀에 따라 분별하여 세상의 가치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되게 하소서. 한국교회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 자신을 드리기를 힘쓰며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굳게 서게 하옵소서.

2. 북한을 위한 기도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원을 싹트게 하리라”

북한, 관광객 받으면서 국제구호단체는 여전히 차단

2020년 코로나 국경 폐쇄로 현지 구호단체 철수



북한이 러시아 관광객의 입국을 허용했으나 국제 구호단체들에는 여전히 빗장을 풀지 않는다고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가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북한이 지난 2020년 1월 코로나19로 국경을 폐쇄하며 당시 국제 구호단체 직원들도 대거 북한을 떠났다.

2021년을 마지막으로 구호단체 직원이 전원 철수한 데 따라 현재 북한의 인도주의적 상황을 파악하려면 북한 정부가 승인한 현지 인력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형편이다.

지난해부터 북-중 간 화물트럭 운행이 재개되며 북한 국경 개방 움직임이 보이고 지난 9일에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러시아 단체 관광객들이 북한에 도착했지만, 여전히 국제 구호단체 직원들은 입국하지 못하고 있다.

유니세프는 2월 현재 북한 당국으로부터 입국 시기에 관한 확인을 받지 못한 상태라며 북한 정부 파트너들에게 유니세프 직원이 조속히 돌아갈 수 있도록 계속 촉구하고 있다. 국제적십자위원회도 북한 적십자사와 연락은 유지하고 있지만 “2020년 이후 당국의 제한 조치로 북한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제적십자사회연합도 북한 접근이 차단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는 다시 입국이 허용되면 직원들과 함께 돌아갈 준비가 돼 있다”며 “아직 직원들의 구체적인 복귀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북한이 언제 이들 국제 구호단체의 입국과 북한 내 활동을 허용할지는 미지수다.

레오 판 데어 벨덴 전 세계식량기구 북한 주재 부국장은 북한 활동 재개 시점을 예상하며 북한 우방국의 세계식량기구 직원들과 스위스 외교부 산하의 스위스개발협력청이 복귀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북한은 스위스와의 교류에 비교적 개방적이었고, 스위스는 중립국 지위를 이용해 원조를 제공하고 외교 관계를 유지해 왔다는 점에서다.

그러나 북한이 국제구호기구 직원들의 복귀를 허용하지 않고 원조만을 원격으로 전달받기를 원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이러한 방안에 대해 제롬 소바주 전 유엔개발계획 평양사무소장은 “직원의 현지 모니터링 없이 원조 전달이 가능한 것인지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북한 국경 차단이 길어질수록 구호단체와 북한 모두 좋지 않다고 우려했다.

최근 유니세프는 북한 9개 도, 41개 구역 의료 시설을 방문한 결과 “북한에서 아동 치료용 의약품과 백신, 의료 소모품 공급이 충분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출처: 연합뉴스 종합).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이사야 45:8)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요한계시록 3:20)

하나님, 관광객의 입국은 허용하나 북한 주민의 생명과 직결된 구호단체의 빚장은 여전히 풀지 않는 북한 당국과 위정자들의 완고한 마음을 주께서 다스려 주십시오. 국경이 폐쇄돼 아프고 굶주린 현장에 갈 수 없는 상황을 통해 문밖에 서서 두드리시는 주의 마음을 구호단체가 알게 하시고 주님의 눈과 지혜로 이 난관을 이겨내게 하소서. 북한에 주의 공의를 뿌려주셔서 사랑하는 자에게 내리시는 책망과 징계를 위정자들이 받게 하시고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주를 믿고 사모하는 영혼에 부어주시는 충만함이 북한 교회에 넘치게 하사 생명의 떡 되신 그리스도를 모두에게 전파하게 하시고 열방을 유업으로 받는 기쁨의 땅 되게 하소서.

3. 다음세대를 위한 기도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이라”

부흥을 위한 신학생들의 연합, 영적 대각성의 불 지펴

‘신학생이 거듭나면 한국교회도 살아난다’...한국교회 회복으로 이어지길 기대



국내 신학생들의 전국 단위 대각성 집회가 열렸다. 연합에 동참한 신학대 총학생회·신학대학원만 총 23곳으로 소속 교단 역시 장로교·감리교·침례교 등 다양했다. 강단 앞에 줄지어 무릎 꿇은 신학생들의 모습은 지난해 2월 미국의 애즈배리 대학교 부흥 현장을 옮겨 놓은 듯했다.

“여리고처럼 돌기만 해도 무너지는 성도 있지만, 헤브론 전투처럼 힘든 싸움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싸움이든 여호와께서 함께하시면 능히 이깁니다.” 29일 서울 동작구 총신대(총장 박성규)에서 전국신학대학교학생연합(KATS·대표 최영섭 목사)

이 개최한 신학생 대각성 집회 ‘홀리 디렉션’(HOLY DIRECTION)이 열렸다.

최영섭 전국신학대학교학생연합 대표는 “한국교회가 살려면 신학대학이 먼저 살아야 한다”면서 “미래의 교회를 이끌 신학생들이 참된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거듭나도록 돕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새날은 어떻게 열리는가’(수1:1-4)를 주제로 설교한 박성규 총장은 “우리가 죄에서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새날을 허락하신다”며 “믿음은 방향이 중요하다. 힘들고 더디더라도 주님만 보고 나아가면 부흥의 날은 올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부흥을 위한 신학생들의 이번 연합은 한국교회의 기초를 놓는 일”이라고 격려했다.

2부 메시지를 전한 오정현 사랑의교회 목사는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행 7:22-38)를 주제로 참석자들을 권면했다. 오 목사는 “마음이 같은 사람 셋만 모여도 나라가 생긴다는 말이 있다. 이 자리에 모인 신학생이 거듭나면 한국교회도 살아난다”며 기도를 이어갔다.

“자성하자, 회개하자”는 기도 인도자의 요청에 신학생들은 접이식 의자에서 일제히 내려와 무릎을 꿇었다. 신학생들은 반주 음향보다 큰 목소리로 “주여”를 외치며 눈물을 흘렸다. 아이자야썩스티원의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찬양에 기도회는 더 뜨거워졌다.

신학생들을 위해 기도한 평신도 참석자도 적지 않았다. 김유철(38) 씨는 “버스에서 극동방송 광고를 듣고 참석하게 됐다”며 “신학생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역할 수 있도록 기도했다”고 전했다. 경기도 용인 선봉대교회에서 온 정유찬(15) 군은 “목회자의 꿈을 꾸는 신학생 형·누나들이 좋은 목사님이 되길 응원한다”고 말했다.

신학생들은 연합 모임이 한국교회의 회복으로 이어지길 기대했다. 한국침례신학대 신대원 원우회장인 신준수(30) 전 도사는 “신학생들의 연합 모임이 한국교회의 갈등을 봉합하고 부흥을 견인하는 데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전했다(출처: 국민일보, 데일리굿뉴스 종합).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폐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디모데후서 1:9-11)

여호와와 그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여호수아 5:15)

하나님, 미래의 한국교회를 이끌어 갈 다음세대인 신학생들이 모여 말씀 앞에 서고 회개함과 거듭남의 은혜를 구하며 영적 각성과 부흥을 소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들에게 십자가 복음을 밝히 깨우치사 나로서 불가능한 이 부르심의 길을 오직 나 죽고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듭난 생명으로만 걸어갈 수 있음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종으로 세우심을 입어 나아간 사역의 현장에서 사람의 일이나 세상의 방법을 택하지 않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복음으로 말기신 영혼들을 섬기게 하소서. 신학교와 교회의 위기라고 말하는 이때 거룩한 소명을 받아 자신의 신을 벗은 이들을 통해 다음세대에서 기성세대에 이르기까지 참된 교회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다음은 ‘대륙별 긴급기도정보’로 기도가 진행됩니다.
각 해당 장소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실1 -
기도실2 -
기도실3 -

소그룹별 기도가 마친 후에는 다시 함께 모여 합심기도로 마무리합니다.